

언택트 시대, 진료실과 블로그로 듀얼 소통해요

수원 차안박피부과 블린이
박세영 피부과 전문의



수원 차안박피부과 박세영 피부과 전문의는 스스로를 블린이(블로그 + 어린이 : 초보 블로거)라 칭한다. 지난 1월부터 수원 차안박피부과 공식 블로그를 직접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SNS 세계를 경험하게 됐다. 좌충우돌 입문이었지만 너무 소중한 일상이 되어 버린 피부과 전문의 블로거, 그간의 이야기를 풀어내 보았다.



글쓰기, 매번 어렵지만 콘텐츠 하나하나 소중해

“1월 부터 블로그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막막하고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블로그였죠. 교육도 받고, 자료를 찾아보며 주변에 묻기도 하면서 시작했답니다. 미흡하나마 꾸준히 진행하다 보니 시작했을 때 보다 30배 정도 방문자 수가 늘었어요.(웃음) 그 중에서 ‘편평사마귀 바이러스. 이젠 안녕’이라는 포스팅은 14,500뷰를 넘어섰습니다. 고수들에게는 별일 아닌 수치겠지만 전 뿌듯합니다. 콘텐츠 하나하나가 다 내 자식 같습니다.” 매번 새로운 글을 작성해야 한다는 게 가장 힘든 점이지만 언제부터인가 이번 달에는 무슨 글을 써볼까 미리 생각하게 되고 매일 아침 방문자와 유입 키워드, 댓글을 확인한다.

“내가 쓴 글에 대한 유저들의 반응도 궁금하고 대면이 아닌 비대면 소통이라 의학용어는 가급적 쉽게 풀어내기 위해 고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포스팅 횟수가 늘면서 쉬운 표현을 찾기 위해 한번 더 생각하게 된다는 그다.

블로그 보고 왔어요! 너무 반가운 말, 더욱 책임감 느껴

진료실에서 환자를 대면하는 것과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환자와 소통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 일까.

“흥미로운 점은 작성하고 심혈을 기울인 포스팅은 예상과 달리 기대만큼의 반응이 없고 의외의 포스팅에서 반응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 과정에서 실제로 환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 원하는 점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진료실에서 환자들이 물어보는 것들을 블로그에 포스팅하고, 글에 대한 반응에 따라 기존에는 진료시 생략했던 부분들을 혹시 궁금하지 않을까란 생각에 미리 설명하기도 해요. 환자들의 만족도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약물은 여전히 상처

지만 조금씩 내공이 생기고 있다는 박세영 원장은 블로그 보고 찾아왔다는 환자의 말 한마디가 너무 힘이 된다. 더불어 랜선에서 현실로 이어지는 인연을 넘어 믿고 맡길 수 있는 “믿음직한 의사”가 되고 싶다는 그다. 구체적으로 수원 차안박피부과에 오면 피부과 전문의만의 차별화된 정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 불필요한 치료는 권하지 않고, 꼭 필요한 맞춤치료를 시행하는 곳이라는 믿음이 그것이다. 또한 상투적이지만 “환자의 입장에서 가장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항상 노력하는 병원이 되겠다”고 전했다.

무한 신뢰를 주는 의료진 그리고 든든한 직원

블로그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이민숙 원장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가능했다고 강조한다. 그러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 공식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 감사한 마음을 꼭 전하고 싶다고 귀띔했다. 수원 차안박피부과는 전 연령층이 다양하게 찾는 곳이다. 화상, 대상포진 같은 보험 질환부터 여드름, 기미, 리프팅 등의 미용 치료까지 다양한 치료가 가능하다.

“주력시술은 모공과 기미를 동시에 잡는 트리플 토닝입니다. 레이저 토닝, 제네시스, 피코 레이저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어 효과를 높일 수 있어요. 티 나지 않지만 효과는 좋아 꾸준히 받는 분들이 많아요. 수원 지역에 처음 도입된 플라듀오는 항균, 염증 완화, 피부 손상 치유 등 여드름에 효과 있는 아르곤 플라즈마(R토닝), 노화로 손상된 콜라겐, 탄력섬유 등을 재생시켜 피부 탄력 증가, 미백, 모공 축소 등의 효과가 좋은 질소 플라즈마(N토닝)로 다양한 피부 고민을 해소해 줄 프로그램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통해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처음은 누구에게나 어렵다. 너무 늦지 않았을까 조바심이 나기도 한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는 법이다. 박세영 원장은 불린이로서는 첫 걸음을 내민 것이지만 환자의 입장에서 가장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피부과 전문의이기도 하다. 코로나 블루 속 수원 차안박피부과에서 전하는 준비된 스킨 힐링 메시지다.

